

호주 참외 · 멜론 검역 타결에 따른 수출시장 경쟁력 분석

2023.07.



2023년 7월 14일자 매매기준율(하나은행) 적용
1 USD(달러) = 1,273.00원, 100 JPY(엔) = 916.98원, 1 AUD(호주달러) = 870.16원

[목 차]

I. 호주 검역 타결 현황	4
II. 호주 신선 과일 시장현황	7
III. 참외 경쟁력 분석	13
1. 국내 시장현황.....	13
2. 주력 시장현황(일본).....	17
IV. 멜론 경쟁력 분석	24
1. 국내 시장현황.....	24
2. 주력 시장현황(일본).....	28
3. 개척 시장현황(호주).....	34
V. 시사점	43
1. 시장현황 분석.....	43
2. 한국산 경쟁력 확보 방안.....	45

호주 참외 · 멜론 검역 타결에 따른 수출시장 경쟁력 분석

1. 호주 검역 타결 현황

- 한국산 참외와 멜론은 2023년 12월부터 호주 수출 가능
 - * 현재 호주 농수산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는 한국산 참외와 멜론의 수입요건을 개발 중
 - * 호박과실파리, 거미응애, 꽃노랑총채벌레, 유라시아꽃총채벌레, 멜론 총채벌레를 검역대상 해충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권장 관리방안을 발표

2. 호주 신선식품 시장현황

- 신선 과일은 주로 도매시장을 거쳐 소매채널로 유통되며, 그 중 슈퍼마켓의 비중이 76.4%에 달함

3. 참외 경쟁력 분석

- 주요 수출국인 일본에서의 인지도 역시 높지 않은 편이나, 현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인지도 제고 중
 - * 일본 소비자는 주로 한국 콘텐츠에서 참외를 접한 뒤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산 참외 특유의 식감과 맛에 긍정적

4. 멜론 경쟁력 분석

- 주요 수출국인 일본 역시 멜론을 주로 소비하나, 일반 소매채널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멜론은 드문 편이며 최근 세지멜론이 수출됨
- 멜론은 호주의 대중적인 과일로 다수의 소비자가 섭취 경험을 보유했음
 - * 호주는 멜론의 순 수출국으로 2022년 기준 지난 2년간 멜론류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음
 - * 주로 호주산 캔달루프, 허니듀 멜론을 소비하며 산타클로스·옐로 허니듀 등 특수 멜론의 인지도 역시 높은 편

5. 시사점

- 한국산 경쟁력 확보 방안 수립 및 실행 필요

참외	- 시식 기회 확대, 현지화된 레시피 개발 및 확산 등으로 참외에 대한 인지도 제고 필요 - 적극적인 홍보 및 판촉 전략을 통해 고품질, 고품격의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 필요
멜론	- 균일한 품질관리와 시식 기회 제공을 통해 한국산 멜론에 대한 인지도 제고 필요 - 친환경 소재로 차별화된 포장, IT 기술을 활용한 제품 정보 조회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호주산 멜론과의 차별화 전략 필요

1. 호주 검역 타결 현황

- 2023년 7월 14일 기준, 호주 농수산임업부는 한국산 참외와 멜론의 수입 요건을 제정 중¹⁾
 - 2019년 5월, 호주 농수산임업부는 한국의 요청에 따라 한국산 참외와 멜론에 대한 위험분석에 착수
 - 현재 한국산 참외와 멜론에 대한 수입 요건 개발이 진행 중이며, 위험분석을 완료하고 최종 보고서가 게시된 상태
 - 한국산 참외와 멜론의 對호주 수출은 수입 요건이 호주의 BICON(Biosecurity Import Conditions system, 생물보안 수입 조건 시스템)에 게시된 후 2023년 12월부터 가능할 예정²⁾

- 對호주 수출용 참외와 멜론은 해충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
 - 호주 농수산임업부가 발표한 위험분석 결과 최종 보고서에는 한국산 참외와 멜론에 존재하는 위험요소와 권장 관리방안 포함
 - 최종 보고서의 위험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산 참외와 멜론은 온실에서 재배되어야 하며, 5가지 검역대상 해충에 대한 관리가 요구됨

<표 1-1> 한국산 참외와 멜론의 검역대상 해충

구분	학명
초파리(Fruit flies)	호박과실파리(Zeugodacus depressus)
진드기(Mites)	거미응애(Tetranychus kanzawai)
총채벌레(Thrips)	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
	유라시아꽃총채벌레(Frankliniella intonsa)
	멜론 총채벌레(Thrips palmi)

*출처: 호주 농수산임업부(www.agriculture.gov.au)

1) Oriental melon and rockmelon fruit from Korea,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www.agriculture.gov.au)(검색일: 2023.07.14.)

2) 한국산 참외와 멜론 12월부터 호주로 수출 가능, KATI 농식품수출정보(2023.06.28.)(검색일: 2023.07.14.)

- ▲초파리 ▲진드기 ▲총채벌레에 존재하는 위험요소가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된 제품에 한해, 호주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5가지 해충에 대해 호주 농수산업부는 권장 관리방안을 제시

<표 1-2> 검역대상 해충의 권장 관리방안

구분	권장 관리방안
호박과실과리(Zeugodacus depressus)	해충이 없는 지역에서 생산
	호박과실과리 방제에 효과적인 과일 처리 시행
총채벌레(Thrips) 3종 및 거미응애(Tetranychus kanzawai)	수출 전 육안검사 시행 및 발견 시 즉시 시정 조치 실시

*출처: 호주 농수산업부(www.agriculture.gov.au)

□ 호주 농수산업부는 참외·멜론의 위생을 보장·유지·관리 하기 위한 권장 운영체계를 제시

- ▲생산지 ▲포장시설 ▲포장용기 및 라벨링 ▲운송·보관 등에 대한 위생관리 권고

<표 1-3> 참외·멜론의 권장 위생관리 운영체계

생산지 추적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외와 멜론은 생산지로 등록된 지역에서만 생산·공급되어야 함 - 호주에서 검역 대상 해충을 차단하기 위해 생산지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등록·승인된 지역에서 생산한 참외와 멜론은 준수해야 하는 다른 요건에 따라 생산 및 수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호주 수출용 참외와 멜론의 생산지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 농가가 호주의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함 - 생산 및 수확 시 수출 생산 현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하고, 이에 대한 감사 기록을 보관해 요청이 있을 시 호주 농림수산업부에 제공해야 함
포장 및 처리시설의 등록 및 감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외와 멜론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해 승인된 포장시설에서만 포장되어야 함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고 해충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등록된 포장시설이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위생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포장, 라벨링 및 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된 포장재를 사용해 해충을 방제해야 함 - 포장 및 운송에 사용되는 모든 목재 재료는 호주 생물보안수입조건시스템(BICON)의 수입 요건을 준수해야 함 - 보관·운송 중 해충의 재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호주 생물보안수입조건시스템의 보안 포장 요건(secure packing options)을 준수해야 함 - 다음과 같은 포장을 사용해 해충으로부터 참외와 멜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음

포장, 라벨링 및 용기	일체형 상자	환기 구멍이 없는 상자와 바닥에 단단히 고정된 뚜껑이 있는 일체형 상자에 포장
	덮개가 있는 상자	환기 구멍이 있는 경우 구멍의 크기는 1.6mm 이하이고, 두께가 0.16mm 이상인 그물망으로 덮거나 테이프로 덮어야 함
	폴리에틸렌 라이너	밀봉된 폴리에틸렌 라이너와 페인트가 내부에 있는 경우 통기성 용기를 사용할 수 있음(폴리에틸렌 봉지 사용 가능)
	매쉬, 수축 포장 팔레트 및 단위하중장치(ULD)	단위하중장치는 직경 1.6mm 이하의 구멍과 두께가 0.16mm 이상인 폴리에틸렌·플라스틱·포일 시트 및 매쉬망으로 완전히 덮거나 포장되어야 함
	완전 밀폐 용기	구멍이 뚫린 상자 및 팔레트는 완전밀폐용기로 운송할 수 없으며, 밀폐된 용기는 단단한 면이 있는 직육면체 용기 또는 구멍이나 틈이 없는 방수포를 보유한 ULD를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외와 멜론은 바깥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식별 라벨을 부착해야 함 - 방사선 조사 처리된 참외 및 멜론은 ‘the fruit has been treated with ionising radiation.(이온화 방사선 처리된 과일)’ 문구를 함께 라벨에 표시해야 함
보관 및 운송 세부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 및 운송 중 참외의 위생을 유지해야 함 - 처리 또는 검사를 거친 호주 수출용 참외와 멜론은 국내로 출하되는 과일과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함 - 호주 수출용 과일임을 명확하게 표지판으로 표시해야 함 	
이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수출용 참외와 멜론에 이물질(시든 줄기와 잎, 씨앗, 토양, 동물성 물질 및 부품 또는 기타 외부 물질 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함 - 이물질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물질이 포함된 화물은 시정 조치를 실시한 후 재검사에 통과한 뒤 수출되어야 함 	
수출 전 식물검역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서 호주로 수출되는 참외와 멜론은 모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출검역을 통과해야 함 - 수출검역은 육안검사와 샘플링 검사로 구분되며, 해충, 이물질의 혼입 여부를 검사해야 함 - 수출검역에 통과한 화물은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받으며, 식물위생증명서에는 생산·유통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 승인·등록된 시설명과 주소, 해충이 없는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확인하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함 	
수입 후 검역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에 검역증명서를 소지한 화물이 도착하는 즉시, 호주 농림수산업부는 화물이 검역증명서에 기술된 내용과의 동일성 여부, 필요한 검역조치의 시행 여부 등을 위한 서류 평가를 진행 - 한국산 참외와 멜론이 호주의 수입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사하기 위해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해 검사할 수 있음 	
미준수 시 시정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의 수입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화물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실시될 수 있음 - 효과적인 시정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 화물은 반송되거나 폐기될 수 있음 	

*출처: 「Oriental melon and rockmelon fruit from Korea: biosecurity import requirements final report」, 호주 농수 산산업부(www.agriculture.gov.au)

II. 호주 신선 과일 시장현황

1. 소비현황

□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국적인 식품’ 이 인지도를 얻으며 이국적인 과일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

-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이국적인 과일’ 에 대한 관심 증가
 -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국적인 과일(두리안 등)을 섭취하고 후기를 공유하는 게시물이 인기를 얻으며 ‘이국적인 과일’ 키워드가 트렌드로 부상
 - 최근 망고스틴, 스타푸르츠 등의 이국적인 열대 과일이 호주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고 있음
- The canberra times³⁾, Taste⁴⁾, Freshplaza⁵⁾ 등 식품 매체는 이국적인 과일을 호주의 식품 트렌드 중 하나로 소개하기도 함
- 최근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며 따라 이국적인 한국 음식에 대한 호주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
 - 호주 소셜미디어에 한식을 섭취한 경험을 공유하고 호주 내 한식 음식점을 추천해주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음
 - 한식 섭취 경험을 보유한 소비자는 알로에 음료 등 한국 식품을 건강한 식품으로 인식함

□ 참외는 현지에서의 인지도가 미약한 수준인 반면, 멜론은 꾸준히 소비되는 품목

- 호주 시장에서 참외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아, 한국 교민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

3) Fancy a mangosteen or a jujube? The exotic fruit branching across regional Australia, The Canberra Times(2023.05.15.)(검색일: 2023.07.14.)

4) rambutans and mangosteens are the premier tropical fruits. Use them to bring a touch of the exotic East to your kitchen(www.taste.com.au/healthy/articles)(검색일: 2023.07.14.)

5) The popularity of a unique exotic fruit set to soar in Australia in coming seasons, FreshPlaza(2022.02.14.)(검색일: 2023.07.14.)

- 참외에 대한 인지도는 교민들과 한국 거주 경험을 보유한 일부 현지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형성됨
 - 현지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한인·아시안 마트에서도 거의 판매되지 않아 호주 현지 소비자의 참외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
 - 온라인 상 참외 구매처를 문의하는 호주 교민의 게시글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대체재로 참외와 비슷한 맛이 나는 멜론이 추천되고 있음
 - 참외와 외관이 비슷한 황금 멜론(Gloden melon 또는 헬로우 멜론>Hello melon)과 산타클로스 멜론(Santa Claus melon)이 참외의 대체재로써 소개됨
- 멜론은 참외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지도 및 소비규모가 큰 편
- 호주 소비자의 연간 멜론 소비액은 13.86 호주달러(한화 약 1만 2,060원)로 집계
 - 주로 ①베리류 ②사과 ③핵과를 소비하며, 멜론은 소비액 기준 열대과일류에 이어 6위를 차지

<그림 II-1> 호주 연간 과일 소비액

(단위: 호주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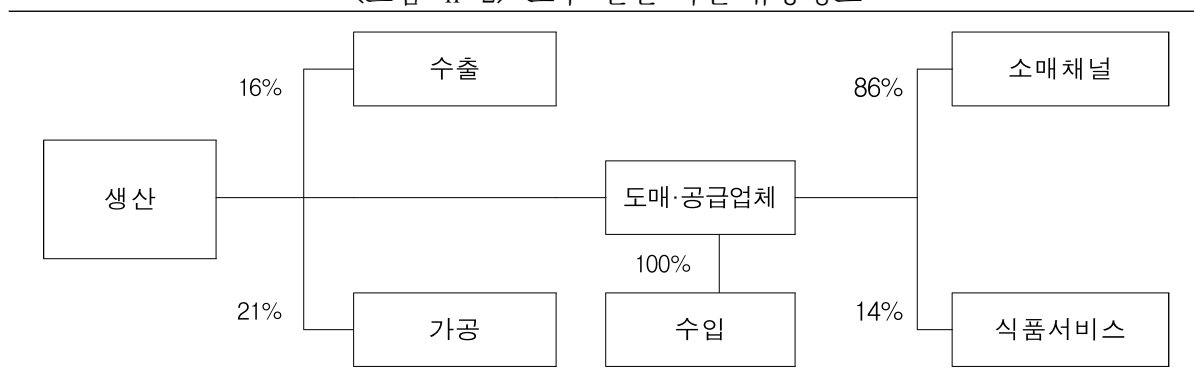
*출처: Rockmelon and other melons Report(Hort Innovation)(검색일: 2023.07.12.)

2. 유통현황

□ 호주에서 신선 과일은 도매시장과 소매채널을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

- 호주에서 생산된 신선 과일은 대부분 도매시장을 통해 소매시장에 공급
 - 호주에서 생산된 신선 과일 중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과일(21%)과 수출용 과일(16%)을 제외한 물량은 도매·공급업체를 통해 소매채널 및 식품서비스로 공급됨
 - 소매 채널로 공급된 과일은 울월스(Woolworths), 콜스(Coles) 등의 슈퍼마켓이나 할인점(알디(Aldi) 등), 과일 전문 유통채널(프루토피아(Fruitopia) 등)을 비롯해 아시안 마트 등을 통해 판매됨
 - 호주 원예혁신협회에 따르면, 수입 신선과일은 전량 도매·공급업체를 통해 소매채널과 케이터링 등 식품 서비스 업체로 공급

<그림 II-2> 호주 신선 과일 유통경로



*출처: Australian Horticulture Statistics Handbook 2021/22(Hort Innovation)(검색일: 2023.07.14.)

- 주요 슈퍼마켓⁶⁾에서 신선 과일 매출의 76.4%가 발생함
 - 주요 3개 브랜드를 제외한 일반적인 슈퍼마켓⁷⁾에서 나머지 매출 발생(10.1%)

□ 소매 채널로 유통된 식품은 주로 슈퍼마켓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

- 2022년 기준 슈퍼마켓은 호주 식품 유통채널의 59.4% 비중을 차지
 - 슈퍼마켓을 통해 유통된 신선식품의 매출액은 1,009억 6,230만 호주 달러(한화 약 87조 8,533억 원)로 집계
- 검역 타결 이후 호주로 수출한 참외와 멜론 역시 상당수 슈퍼마켓을 통해 유통될 것으로 추정

6) Coles, Woolworths, Aldi를 포함

7) 주요 슈퍼마켓 Coles, Woolworths, Aldi를 제외한 다른 풀-서비스 슈퍼마켓

〈표 II-1〉 신선식품 유통채널별 비중

(단위: 백만 호주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식품)	149,416.5	154,089.4	166,618.2	162,957.8	169,985.7	100.0	4.3	3.3
1 슈퍼마켓	89,928.0	92,617.6	100,312.0	96,985.9	100,962.3	59.4	4.1	2.9
2 편의점	11,139.9	11,903.9	10,701.0	11,201.1	12,447.2	7.3	11.1	2.8
3 하이퍼마켓	12,042.6	12,088.6	12,167.0	12,430.2	12,353.5	7.3	-0.6	0.6
4 할인점	9,200.0	9,738.5	10,809.7	10,685.8	10,517.2	6.2	-1.6	3.4
5 소형 지역 식료품점	7,032.0	7,112.8	8,364.6	8,021.9	8,532.6	5.0	6.4	5.0
6 창고형 매장	1,872.0	2,216.0	2,612.0	2,868.0	3,068.0	1.8	7.0	13.1
7 기타주류·담배 전문점	18,202.0	18,412.0	21,652.0	20,765.0	22,087.0	13.0	6.4	5.0

*출처: 「Retail in Australia」, Euromonitor(검색일: 2023.07.14.)

□ 신선 과일은 슈퍼마켓,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 온라인 등의 유통채널에서 판매

- (농산물직판장)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과일은 파머스 마켓, 퍼블릭 마켓(Public market) 등 재래시장에서 판매되기도 함
 - 파머스 마켓은 슈퍼마켓 대비 판매하는 신선 과일·채소의 종류는 다소 제한적이나 가격이 저렴한 특징이 있음⁸⁾
 - 주로 제철 신선 과일과 채소가 판매되며, 파머스 마켓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은 현대 소매채널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대비 저렴하고 신선하다는 인식을 보유
- (슈퍼마켓) 호주산 과일이 주로 판매되며 일부 수입산 과일 역시 판매 중
 - 울월스·콜스는 매장에 ‘NOW In Season(제철)’ 신선식품 매대를 설치함
 - 이는 제철에 출하된 과일을 오랜 기간 저장된 과일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으로 여기는 호주 소비자의 성향을 반영한 결과
 - 또한, 호주에서 생산한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성향에 맞춰 ‘호주에서 생산(Australian Grown)’한 신선식품 매대를 운영 중
 - 매대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호주산 신선식품에는 주로 호주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Australian Grown’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하고 있음

8) Best-Rated Supermarket Fruits & Vegetables, 호주 식품 뉴스매체 Canstar blue

<그림 II -2> 울월스(Woolworths)·콜스(Coles)에서 판매되는 제철 신선 식품



*출처: 호주 뉴스매체 Choice(www.choice.com.au/food), The Conversation(www.theconversation.com), Daily Telegraph(www.dailytelegraph.com.au/) (검색일: 2023.07.14.)

- Harris Farm, MarketPlace Fresh, Fruitezy 등 청과물 판매점⁹⁾은 일반 슈퍼마켓 대비 수입산 농산물 판매 비중이 높음
- 다양한 식재료를 묶음으로 구성한 ‘동양의 맛 박스(Asian Flavours Box)’, ‘제철 과일 박스’ 등을 판매하고 있음
 - ‘동양의 맛 박스’는 배추, 표고버섯, 팽이버섯 등 동아시아권 식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지중해의 맛 박스’, ‘이국적인 과일 박스’ 등 다양한 이국적인 식재료를 세트 구성하여 판매함
 - ‘제철 과일 박스’는 딸기, 멜론, 키위 등 신선한 과일로 구성되었으며,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과일을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호주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음

<그림 II -3> 과일 박스 상품 예시



*출처: 호주 청과물 판매점 Fruitezy(<https://fruitezy.com.au/>), Greenland Grocer(www.greenlandsgrocer.com.au)(검색일: 2023.07.14.)

- 슈퍼마켓은 호주의 주요 식료품 소매채널 중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유통채널임
 - 울월스(25.0%), 콜스(20.3%)는 전체 식료품 소매채널의 45.3%를 차지하는 호주의 대표 슈퍼마켓 체인
 - 할인점 알디(Aldi), IGA 등이 각각 점유율 6.2%, 5.7%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음

9) 청과물을 주로 판매하는 일반 슈퍼마켓을 포함함

- 울월스, 콜스, 알디, IGA는 모두 신선 과일을 판매하고 있음
- 알디·IGA의 신선 과일 판매가가 울월스·콜스보다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¹⁰⁾

〈표 II-2〉 호주 식료품 브랜드별 점유율(2019~2022)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9/22
합계	100.0	100.0	100.0	100.0	0.0	0.0
1 Woolworths	25.5	24.7	25.7	25.0	-2.7	-0.7
2 Coles	19.7	20.6	21.2	20.3	-4.2	1.0
3 Aldi	6.3	6.5	6.6	6.2	-6.1	-0.5
4 IGA	5.6	5.2	5.9	5.7	-3.4	0.6
5 Kmart	4.2	3.9	4.1	3.9	-4.9	-2.4
6 Big W	2.0	2.1	2.4	2.3	-4.2	4.8
7 Costco	1.4	1.6	1.8	1.8	0.0	8.7
8 BP Shop	0.5	0.5	0.5	1.5	200.0	44.2
9 Target	1.7	1.4	1.1	1.1	0.0	-13.5
10 FoodWorks	1.6	1.6	1.0	0.8	-20.0	-20.6
11 기타	32.6	31.9	29.7	31.4	5.7	-1.2

*주: 기타는 Coles Express, 7-Eleven, Ampol, EG, United, Harris Farm Markets, Star Mart, Woolworths Petrol, BWS, Metcash Liquor, Liquorland, Dan Murphy's 를 포함

*출처: 「Retail in Australia」, Euromonitor(검색일: 2023.07.14.)

- (온라인) 두리안, 망고스틴과 같은 각종 열대과일 등 수입산 과일의 유통비중이 높음
 - 온라인 과일 판매 사이트는 소비자가 원하는 과일을 선택해 묶음으로 판매하는 '과일 박스(Fruit Box)' 상품을 판매함
 - 온라인 과일 판매 사이트는 '이국적인 과일(Exotic Fruits)' 탭을 개설하고 각종 수입산 과일을 취급하고 있음

10) Which supermarket has the cheapest groceries?, 호주 뉴스매체 CHOICE(www.choice.com.au)(2021.10.21.)(검색일: 2023.07.14.)

Ⅲ. 참외 경쟁력 분석

1. 국내 시장현황

- 2021년(최신자료) 기준 최근 5년간 대한민국의 참외 생산량·면적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시설재배 생산이 주를 이룸
 - 2021년 연간 참외 생산량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5%, 전년 대비 33.4% 증가한 19만 8,598톤으로 집계
 - 2021년 경상북도의 생산량은 18만 7,912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94.6%가 경상북도에서 발생

〈표 Ⅲ-1〉 국내 지역별 참외 생산량(2017~2021)

(단위: 톤,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2021)	전년비(20/21)	연평균(17/21)
전체(전국)	166,281	130,528	150,234	148,875	198,598	100.0	33.4	4.5
경상북도	155,622	117,702	137,056	135,608	187,912	94.6	38.6	4.8
대구광역시	4,471	7,129	7,437	7,051	2,767	1.4	-60.8	-11.3
경기도	1,552	1,834	2,282	2,101	2,731	1.4	30.0	15.2
충청남도	527	690	667	2,041	1,631	0.8	-20.1	32.6
경상남도	1,351	581	432	197	1,350	0.7	585.3	0.0
제주도	305	245	219	158	478	0.2	202.5	11.9
전라북도	166	516	391	73	395	0.2	441.1	24.2
전라남도	551	728	502	484	374	0.2	-22.7	-9.2
인천광역시	289	200	497	370	351	0.2	-5.1	5.0
기타	1,447	903	751	792	609	0.3	-23.1	-19.5

*주: '기타'는 충청북도, 강원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를 포함
 *출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검색일: 2023.06.29.)

- 동년 참외의 재배면적은 4,653ha로, 최근 5년간 연평균 6.8% 증가
 - 시설 재배면적이 전체 면적의 95% 이상을 차지

〈표 Ⅲ-2〉 국내 참외 생산량 및 재배면적(2017~2021)

(단위: 톤, ha,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년비(20/21)	연평균(17/21)
생산량(톤)	166,281	130,528	150,234	148,875	198,598	33.4	4.5
시설	163,983	127,424	147,040	145,019	194,384	34.0	4.3
노지	2,298	3,104	3,194	3,856	4,214	9.3	16.4
재배면적(ha)	3,581	3,614	3,648	3,596	4,653	29.4	6.8
시설	3,454	3,469	3,488	3,409	4,441	30.3	6.5
노지	127	145	159	186	212	14.0	13.7

*출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검색일: 2023.06.29.)

□ 흰가루병에 강하고 수량성 및 외관이 우수한 품종이 주로 생산되고 있음

- 주요 재배 참외 품종으로는 알찬꿀(33.6%), 은하수꿀(22.4%), 바른꿀(11.2%) 등

〈표 III-3〉 국내 생산 참외 품종별 특징

품종명	알찬꿀	
중량	350g~400g(중과종)	
당도	16~18브릭스	
특징	- 당도와 우수하고 재배관리가 쉬운 품종 - 흰가루병에 강한 품종 - 연속 착과에 유리하며 수량성이 높음 - 과피색은 진한 황색이며 과골이 선명해 외관이 우수함	
품종명	은하수꿀	
중량	350g~400g(중과종)	
당도	높음	
특징	- 흰가루병 내병성 품종 - 기존 참외 대비 수확시기가 3~5일정도 빠름 - 정품과 수확량이 많음 - 연속 착과성이 우수해 수량성이 뛰어남	
품종명	바른꿀	
중량	350g~400g(중과종)	
당도	높음	
특징	- 연속 착과성이 우수한 품종으로 수량성이 뛰어남 - 육질이 치밀해 단단한 과육을 보유 - 정품 생산량이 많음 - 흰가루병에 강하며 고온기에도 과색과 과골이 선명하며 과형을 유지함	
품종명	스마트꿀	
중량	350g~400g(중과종)	
당도	높음	
특징	- 기형과 발생이 적음 - 암꽃 발생력과 착과력이 우수함 - 과장이 짧고 과경이 다소 불룩함 - 과색이 맑고 진한 황색임	

*출처: 더기반(www.thekiban.com), 피피에스(www.ppsseed.co.kr)




□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참외는 날개의 고르기, 섶택, 신선도, 중·경결점과의 비율에 따라 특·상·보통으로 구분

- (특) 과채의 크기가 균일하고, 착색비율이 90% 이상이며 중결점과가 없고 경결점과가 3% 이하인 것
- (상) 과채의 크기가 균일한 편이고, 착색비율이 80% 이상이며

중결점과가 없고 경결점과가 5% 이하인 것

- (보통) 특, 상 등급 기준에 미달하나 중·경결점과의 비율이 각각 5%, 20% 이하인 것

〈표 III-4〉 국내 참외 품질·등급 규격

구분	특	상	보통
사진			
날개의 고르기	〈표 III-5〉의 크기 구분표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3% 이하인 것 (크기 구분표상의 무게에서 1단계 초과 불가)	〈표 III-5〉의 크기 구분표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크기 구분표상의 무게에서 1단계 초과 불가)	특, 상에 미달하는 것
색택	착색비율이 90% 이상인 것	착색비율이 80% 이상인 것	특, 상에 미달하는 것
신선도	과피에 갈변현상이 없고 신선도가 뛰어난 것	과피에 갈변현상이 경미하고 신선도가 양호한 것	특, 상에 미달하는 것
숙도	과육의 성숙정도가 적당한 것	과육의 성숙정도가 적당한 것	특, 상에 미달하는 것
당도표시 시	11° Bx 이상	9° Bx 이상	-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 (부패·변질과는 포함 불가)
경결점과	3%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용어 정의〉

- 착색비율: 날개별로 전체 면적에 대한 품종 고유의 색깔이 착색된 면적의 비율
- 중결점과: ①이품종과 ②부패·변질과 ③과숙과 ④미숙과 ⑤병충해과 ⑥상해과 ⑦모양이 불량한 것
- 경결점과: ①병충해·상해의 피해가 경미한 것 ②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③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 출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1농산물표준규격등급도감」, 참외(2061)

- 참외의 크기는 3L, 2L, L, M, S 등 총 7단계로 구분






〈표 III-5〉 참외 크기 구분표

구분	3L	2L	L	M	S	2S	3S
1개의 무게(g)	715 이상	500 이상 715 미만	375 이상 500 미만	300 이상 375 미만	250 이상 300 미만	214 이상 250 미만	214 미만

* 출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1농산물표준규격등급도감」, 참외(2061)

- 참외는 병해충, 부패, 변질 등으로 결점의 정도에 따라 중결점과 및 경결점과로 구분

<그림 III-1> 참외 결점 사례

		
중결점(병해충)	중결점(병충해)	중결점(상해)
		
중결점(형상불량)	중결점(형상불량)	경결점(병충해)

* 출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1농산물표준규격등급도감」, 참외(2061)

□ 우리나라의 주요 참외 수출국은 ①일본 ②홍콩 순

- 2022년 기준 참외 수출액은 약 69만 5,500달러(한화 약 8억 8,537만 원) 수준
- 동년 기준 우리나라 참외의 44.7%는 일본으로, 35.7%는 홍콩으로 수출되며 2개국 의존도가 높음

<표 III-6> 우리나라 참외 수출현황(2022)

(단위: 천 달러, %)

순위	수출국	수출액 (천 달러)	비중 (%)
전 세계		695.5	
1	일본	310.8	44.7
2	홍콩	248.0	35.7
3	싱가포르	48.4	
4	말레이시아	34.5	
5	베트남	33.4	
6	몽골	14.9	
7	필리핀	3.7	
8	북마리아나 제도	1.3	
수출액			수출국별 비중

*주: HS코드: 0807.19-1000(멜론과 파파야 기타-참외) 기준

*출처: KATI 농식품수출정보(검색일: 2023.07.06.)

2. 주력 시장현황(일본)

가. 수입현황

□ 일본의 주요 참외 수입국은 대한민국으로 추정

- 2022년 일본은 한국산 참외를 약 103만 7,000달러(한화 약 13억 2,010만원) 규모로 수입함
 - 호주, 온두라스, 멕시코 등에서는 참외가 생산되지 않고 미국에서는 내수용으로 소량 생산됨에 따라, 참외는 수입산 대부분이 한국산일 것으로 추정

〈표 III-7〉 일본 참외(멜론 포함) 수입금액 추이(2018~2022)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 세계	26,991	25,808	22,455	22,779	19,291	100.0	-15.3	-8.1
1 호주	1,532	3,542	5,951	9,660	7,492	38.8	-22.4	48.7
2 온두라스	2,186	3,827	4,345	3,762	3,599	18.7	-4.3	13.3
3 멕시코	14,671	11,102	5,920	3,673	3,251	16.9	-11.5	-31.4
4 미국	4,798	3,708	4,106	3,229	3,194	16.6	-1.1	-9.7
5 대한민국	596	815	950	1,222	1,037	5.4	-15.1	14.9
6 코스타리카	632	470	485	N/A	442	2.3	N/A	-8.6
7 과테말라	2,565	2,343	617	1,085	262	1.4	-75.9	-43.5
8 이탈리아	12	0	0	N/A	13	0.1	N/A	2.0
9 베트남	0	0	2	N/A	N/A	N/A	N/A	N/A
10 스페인	0	0	80	139	N/A	N/A	N/A	N/A

*주: HS코드: 0807.19-000(멜론과 파파야-기타) 기준으로 집계했으며, 일본은 참외·멜론에 대해 동일한 HS코드를 사용해 참외·멜론 수입액을 함께 집계함

*출처: ITC Trademap(검색일: 2023.07.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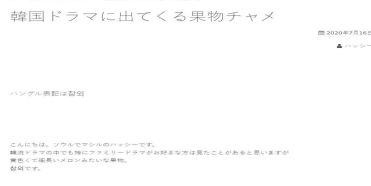
나. 소비현황

□ 참외는 일본에서 ‘한국의 이색적인 여름 과일’로 인식되며, 매체 노출에 의해 인지도가 점차 향상될 것으로 전망

- 일본 소비자는 참외(マクワウリ)를 대중적으로 소비하지 않으며, 일부 소비자층은 참외를 향수를 일으키는 과일로 인식
 - 참외 생산 농가가 멜론으로 재배 작물을 전환하며 참외의 유통량이 급감함에 따라 일부 소비자에 한해 어린 시절 참외를 섭취했던 경험을 보유

- ‘참외’라는 과일에 대해 매체 등을 통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실제 섭취 경험을 보유한 소비자는 드문 것으로 보임
- 한류 콘텐츠의 확산으로 참외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
 - 일부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참외를 판매할 경우,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과일’이라고 소개함
 - 주로 한국 문화 관심도가 높은 소비자, 거주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 한해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이 개인 블로그, 유튜브 채널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참외를 ‘한국의 특산품’ 또는 ‘한국의 대표 여름과일’ 등으로 소개함

〈그림 III-2〉 현지 소비자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개되고 있는 참외

		
<p>번역: 참외를 먹어보았다! 맛과 먹는 방법은? 식감이 좋습니다</p>	<p>번역: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과일 ‘참외’</p>	<p>번역: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과일 참외</p>



*출처: 현지 블로그(<https://kosamam.com/korea-topic/makuwa-melon-review/>, <https://ameblo.jp/gohanclub/entry-12622524595.html>, <https://seoulmasil.com/koreanmelon/>)(검색일: 2023.07.07.)

- 참외에 대한 일본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관계로 선물용 등으로 판매되지는 않으며, 주로 가정 내 소비용으로 판매됨

□ 참외는 일본 소비자에게 친숙하지 않은 과일로, 구체적인 섭취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함

- 참외 섭취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아, 소비자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참외를 섭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지 한국 슈퍼마켓이나 한인타운에서 판매되는 참외는 섭취 방법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음
 - 참외에 섭취 방법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판매 매대에 포스터 및 안내 문구를 기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안내함

〈그림 III-3〉 현지 슈퍼마켓에서 안내문과 함께 판매되고 있는 참외

	<p>(오른쪽) 씨와 함께 먹고 깔끔한 단맛이 나는 아삭아삭한 여름 과일 참외</p>
	<p>(왼쪽) 참외 섭취 방법: 줄무늬를 따라 껍질을 벗깁니다. 열매의 중심에 있는 씨는 매우 맛있습니다. 꼭 함께 드셔보세요.</p> <p>번역</p> <p>껍질을 벗긴 뒤 씨와 함께 섭취하세요. 아삭아삭하고 깔끔한 단맛이 나는 여름 과일입니다.</p> <p>번역</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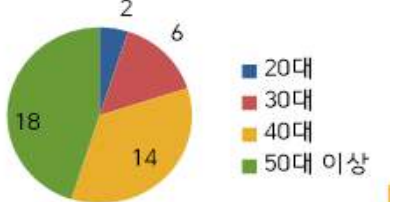
*이미지 출처: 도쿄 거주 소비자 블로그(<https://www.tokyohiroba.com/641>)(검색일: 2023.07.07.)

□ 현지 소비자의 한국산 참외 구매 요인은 ①한국 콘텐츠의 영향 ②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

- 주로 40대 이상 여성 소비자가 참외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 후기를 분석한 결과 주로 40대 이상의 여성 소비자가 참외를 구매하고 있으며, 20~30대 여성의 경우 한국 콘텐츠에서 참외를 접한 것이 구매 동기로 작용함
 - 40대 이상 소비자의 한국산 참외 구매 동기는 주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함

〈표 III-8〉 성별·연령별 한국산 참외 구매자 수

구분	여성	남성
20대	1건	1건
30대	5건	1건
40대	11건	3건
50대 이상	16건	2건
합계	33건	7건



*출처: 일본 온라인 유통채널 라쿠텐(<https://item.www.rakuten.co.jp>)(검색일: 2023.07.11.)

□ 참외는 주로 생식 섭취되며, 이외에도 디저트의 재료로 활용

- 온라인 참외 판매페이지는 생식 외 참외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믹서기에 갈아 꿀을 첨가한 참외 주스를 소개함
- 일본의 전통 음식 유튜버 'KAWAHARA' 는 참외 감초 절임 조리법을 소개하기도 함
- 여름 추천 디저트로 참외 컴포트¹⁾가 레시피 사이트에서 소개되기도 함

<그림 III-4> 일본 소비자의 참외 섭취 방식



① チャマをきれいに洗って切ります。
② 切ったチャマをジューサーに入れます。
③ ミキサーの場合は皮をむいてから、
④ 完成! あおみに合わせて、
ハチミツや砂糖を加えてもOK!

참외 주스

참외 감초 절임

참외 컴포트

*출처: 일본 참외 판매사이트(<https://item.rakuten.co.jp/palco/p196-1/#p196-1>), 일본 레시피 유튜버 KAWAHARA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inakasoba-kawahara>), 일본 레시피 공유 사이트(<https://delishkitchen.tv/>)(검색일: 2023.07.10.)

다. 유통현황

□ 한국산 참외가 주로 유통되며, 일본산은 농산물직판장 등에서 소량 판매

- (한인마트) 대량 구매할 수 있는 박스 포장 제품보다 날개 포장 제품이 주로 판매 중
 - 비닐로 소포장하거나 완충재와 부직포로 개별포장한 제품이 주로 판매됨
 - 판매 매대 옆에 섭취 방법을 안내하는 포스터·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음
 - 현지 매장에서 참외를 처음으로 접한 소비자는 참외의 외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함

<그림 III-5> 일본 현지 유통채널에서 판매되는 참외



완충재와 부직포로 날개 포장한 참외

비닐로 개별 포장한 참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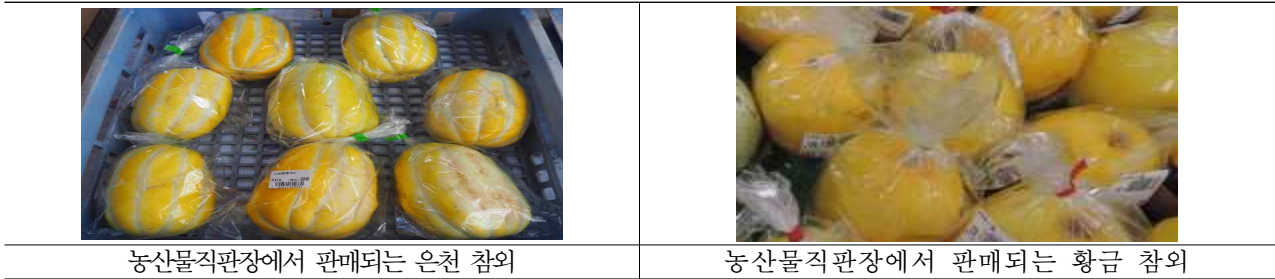
*출처: 도쿄 거주 소비자 블로그(<https://www.tokyohiroba.com>), 일본 뉴스매체 Sirabee(<https://sirabee.com/>)(검색일: 2023.07.07.)

- (농산물직판장) 지역 특산품 판매장, 전통시장 등에서 일본산 참외가 소량 판매 중
 - 참외를 생산하는 농가는 일본에 매우 드물며 소량의 참외가 오프라인에서 '전통 과일'이라는 이름으로 유통 중

11) 레몬, 참외를 함께 설탕물에 넣고 끓인 것으로, 요거트 등과 함께 섭취하거나 얼려서 섭취함

-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일본산 참외는 주로 황금 참외, 은천 참외

<그림 III-6> 일본 현지 유통채널에서 판매되는 참외



*출처: 일본 소비자 블로그(www.morimorihouse.hatenablog.com)(검색일: 2023.07.07.)

<표 III-9> 일본에서 판매되는 참외 품종별 특징

품종명	황금 참외(黄金まくわうり)	
중량	300g~700g	
당도	14.3 브릭스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형에 과골이 없고 깨끗함 - 프린스 멜론이 재배되기 전까지 주로 재배하던 품종이나, 현재는 극소량 생산되는 관계로 생산량이 집계되지 않음 	
품종명	은천 참외(銀泉まくわ)	
중량	평균 400g	
당도	-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심에 공동이 생기는 것이 많음 - 후쿠이현, 도야마현에서 주로 생산되었음 - 현재 후쿠이현, 도야마현의 농산물직판장에서 판매됨 	

*출처: 과일 품종 정보 조회 사이트(<https://foodslink.jp/syokuzaihyakka>)(검색일: 2023.07.12.)

라. 제품현황

□ 일본에서 판매되는 참외는 한국의 특산품이라는 점을 강조

- 한국산 참외는 주로 ‘한국 고유의 과일’ 이라는 점과 특유의 식감을 주로 홍보하고 있음
 - 참외는 한국의 특산품이라는 특징이 주요 홍보 포인트로 사용되고 있음
 - 참외 생산지로 유명한 성주시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특히 강조하기도 함
 - 씨와 함께 섭취하는 등, 참외를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참외가 보유한 영양상의 이점에 대해서도 홍보함
 - 경쟁제품인 일본산 참외와는 다르게 참외 자체의 맛, 식감에 집중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여름에 대중적으로 섭취하는 인기 과일임을 강조

<표 III-10> 일본 참외 유통 현황-한국산

제품사진			
원산지	한국산(성주시)	한국산	한국산
가격	3,680엔 (한화 약 3만 3,744원)	8,532엔 (한화 약 7만 8,236원)	2,224엔 (한화 약 2만 원)
중량(수량)	5개(1.2kg)	12~15개(5kg)	4~6개(1.2kg)
포장 형태	박스 포장	박스 포장	비닐 포장
홍보키워드	‘고당도’, ‘한국 고급 특산품’, ‘한국 여름 인기 과일’	‘고당도’, ‘한국 특산품’, ‘산지 직송’	‘한국 특산품’, ‘비타민E 함유’, ‘아삭아삭한 식감’
제품사진			
원산지	한국산	한국산	한국산
가격	2,580엔 (한화 약 2만 3,658원)	2,800엔 (한화 약 2만 5,675원)	7,300엔 (한화 약 6만 6,939원)
중량(수량)	4개(1.5kg~2kg)	4개	13~15개
포장 형태	-	-	박스 포장
홍보키워드	‘당일 발송’, ‘달콤한 참외’, ‘아삭아삭한 식감’	‘한국 직수입’, ‘한국 참외’, ‘아삭아삭한 식감’	‘한국 여름 과일’
제품사진			
원산지	한국산	한국산	한국산
가격	8,532엔 (한화 약 7만 8,236원)	2,970엔 (한화 약 2만 7,234원)	1,500엔 (한화 약 1만 3,754원)
중량(수량)	12~15개(5kg)	4~6개(2kg)	3개
포장 형태	박스 포장	박스 포장	-
홍보키워드	‘한국 인기 과일’, ‘아삭아삭한 식감’	‘한국 인기 과일’, ‘비타민E 함유’	‘한국 대표 과일’

*출처: 일본 온라인 유통채널 Rakuten(www.rakuten.co.jp), Yahoo 쇼핑(www.shopping.yahoo.co.jp)(검색일: 2023.07.10.)

○ 일본산 참외는 소량 유통되고 있으며, 주로 국산, 향수를 일으키는 과일임을 홍보

- 일본에서 참외가 상업적으로 재배되던 시절 참외를 섭취한 경험을 보유한 고령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어린 시절의 향수를 일으키는 추억의 과일’임을 홍보함
- 또한, 전통 재배 방법으로 생산한 국산 제품임을 강조
- 일본산 품종인 은천 참외와 황금 참외가 판매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처에서는 주로 시가현에서 생산된 황금 참외가 판매되고 있음

<표 III-11> 일본 참외 유통 현황-경쟁제품

제품사진			
원산지	일본	일본	일본
가격	3,794엔 (한화 약 3만 4,790원)	2,484엔 (한화 약 2만 2,777원)	2,980엔 (한화 약 2만 7,326원)
중량(수량)	7~9개(5kg)	6~16개(4kg)	4kg
포장 형태	박스 포장	박스 포장	재활용 박스 포장
홍보키워드	‘국산’, ‘추억의 과일’, ‘전통 방식으로 재배’	‘국산’, ‘당일 수확 당일 발송’, ‘고당도’, ‘추억의 과일’	‘국산’, ‘추억의 과일’, ‘전통 방식으로 재배’
제품사진			
원산지	일본	일본	일본
가격	3,380엔 (한화 약 3만 993원)	1,980엔 (한화 약 1만 8,156원)	4,190엔 (한화 약 3만 8,421원)
중량(수량)	8~12개(5kg)	2개(800g)	7~9개(5kg)
포장 형태	박스 포장	-	-
홍보키워드	‘국산’, ‘추억의 과일’	‘대표 여름 과일’, ‘추억의 과일’	‘추억의 과일’, ‘과하게 달지 않은 과일’, ‘고령층에 인기’

*출처: 일본 온라인 유통채널 Rakuten(www.rakuten.co.jp), Yahoo 쇼핑(www.shopping.yahoo.co.jp)(검색일: 2023.07.10.)

IV. 멜론 경쟁력 분석

1. 국내 시장현황

□ 2021년(최신자료) 기준 대한민국의 멜론 생산량 및 생산면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주로 시설재배로 생산

- 대한민국의 연간 멜론 생산량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5%, 전년 대비 1.6% 증가한 4만 1,264톤으로 집계
 - 국내 멜론 주요 생산지는 충청남도(34.8%), 전라남도(26.4%) 순

〈표 IV-1〉 국내 지역별 멜론 생산량(2017~2021)

(단위: 톤,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021)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전국)	34,650	36,401	39,812	40,622	41,264	100.0	1.6	4.5
충청남도	8,798	8,742	11,779	13,090	14,368	34.8	9.8	13.0
전라남도	10,139	10,816	11,870	11,456	10,901	26.4	-4.8	1.8
경상남도	6,913	7,548	7,626	7,494	7,482	18.1	-0.2	2.0
경상북도	4,796	5,712	4,988	4,847	4,859	11.8	0.2	0.3
전라북도	1,932	1,656	1,674	1,531	1,555	3.8	1.6	-5.3
강원도	1,302	1,309	1,256	1,239	1,207	2.9	-2.6	-1.9
충청북도	600	449	450	785	712	1.7	-9.3	4.4
기타	169	169	170	179	179	0.4	0.0	1.4

*주: 기타: 대구광역시, 경기도, 광주광역시를 포함

*출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검색일: 2023.06.29.)

- 동년 멜론의 재배면적은 1,518ha로, 최근 5년간 보합세

〈표 IV-2〉 국내 멜론 생산량 및 재배면적(2017~2021)

(단위: 톤, ha,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생산량(톤)	34,650	36,401	39,812	40,622	41,264	1.6	4.5
시설	34,622	35,236	39,551	40,518	41,157	1.6	4.4
노지	139	1,165	261	104	108	3.8	-6.1
재배면적(ha)	1,457	1,454	1,502	1,510	1,518	0.5	1.0
시설	1,456	1,437	1,486	1,503	1,510	0.5	0.9
노지	1	17	16	8	7	-12.5	62.7





*출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검색일: 2023.06.29.)

□ 주요 멜론 품종으로는 엘스엘리트, 하니원 등

- 국내는 네트 멜론의 상위 품종인 머스크 멜론을 주로 소비

- 멜론은 크게 열매의 겉표면이 그물처럼 갈라져 있는 네트멜론과 겉표면이 매끄러운 무네트멜론으로 구분

〈표 IV-3〉 국내 생산 멜론 품종별 특징

품종명	노을	
유형	네트형	
당도	17~18브릭스	
특징	- 당도가 다른 네트멜론보다 높으며, 껍질이 얇고 특유의 향이 있음 - 과육의 조직이 치밀하고 저장성이 높아 수출에 적합 -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 수출 중	
품종명	얼스엘리트	
유형	네트형	
당도	정보 없음	
특징	- 늦봄~초가을 고온기에 재배 - 재배 난도가 쉬우며 네트가 굵고 외관이 우수함 - 흰가루병에 다소 약함	
품종명	하니원	
유형	네트형	
당도	최대 20브릭스	
특징	- 춘천시에서 독점으로 한정 생산하는 멜론 - 일반 멜론에 비해 당도가 높아 후숙을 거치지 않고 즉시 섭취할 수 있음 - 재배기간이 일반 멜론의 절반(75-80일) 가량으로 짧음	
품종명	백자	
유형	무네트형	
당도	15~17브릭스	
특징	- 껍질이 얇으며 과육의 발효가 거의 없음 - 과육이 다른 멜론보다 부드럽고 아삭아삭하며, 과심부터 껍질 부위까지 당도가 일정함 - 홍콩, 대만 등으로 수출하고 있음	

*출처: 동남아서 시장성 확인... '백자·노을' 신품종으로 시장개척 박차(한국농어민신문, 2022.12.16.), 춘천 하니원 멜론 '신비팜' (MS TODAY, 2020.06.13.), 「멜론의 종류와 주요 품종」, 농촌진흥청(검색일: 2023.06.29.)

□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멜론은 날개의 고르기, 선택, 신선도, 중·경결점과의 비율에 따라 특·상·보통으로 구분

- (특) 과채의 크기가 균일하고, 선택과 신선도가 뛰어나며 중·경결점과가 없는 것
- (상) 과채의 크기가 균일한 편이고, 선택과 신선도가 양호하며 중·경결점과가 없는 것
- (보통) 크기의 균일성, 선택, 신선도 등이 특·상의 기준에

미달하고 중·경결점과가 포함된 것

〈표 IV-4〉 국내 멜론 품질·등급 규격

구분	특	상	보통
사진			
날개의 고르기	〈표 IV-1〉의 크기 구분표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표 IV-1〉의 크기 구분표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특, 상에 미달하는 것
색택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이 뛰어나며 네트계 멜론은 그물 모양이 뚜렷하고 균일한 것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이 양호하며 네트계 멜론은 그물 모양이 양호한 것	특, 상에 미달하는 것
신선도 및 속도	꼭지가 시들지 않고 과육의 성숙도가 적당한 것	꼭지가 시들지 않고 과육의 성숙도가 적당한 것	-
날알의 형태	-	-	특, 상에 미달하는 것
당도표시 시	13° Bx 이상	11° Bx 이상	-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
경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20% 이하인 것





〈용어 정의〉

- 중결점과: ①이품종과 ②부패·변질과 ③과숙과 ④미숙과 ⑤병충해과 ⑥상해과 ⑦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⑧기타 결점의 정도가 심한 것
- 경결점과: ①병충해·상해의 피해가 경미한 것 ②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③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출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1농산물표준규격등급도감」, 멜론(2091)

- 멜론의 중·경결점 유형은 병해충, 부패, 변질 등으로 결점의 정도에 따라 중결점과 및 경결점과로 구분

〈그림 IV-1〉 멜론 결점 사례

			
중결점(병해충)	중결점(부패, 변질)	중결점(부패, 변질)	경결점(기타)

*출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1농산물표준규격등급도감」, 멜론(2091)

- 멜론의 크기는 2L, L, M, S 4단계로 구분

<표 IV-5> 멜론 크기 구분표

구분		2L	L	M	S
1개의 무게(kg)	네트계	2.6 이상	2.0 이상 2.6 미만	1.6 이상 2.0 미만	1.6 미만
	백피계·황피계	2.2 이상	1.8 이상 2.2 미만	1.3 이상 1.8 미만	1.3 미만
	파파야계	1.0 이상	0.75 이상 1.0 미만	0.6 이상 0.75 미만	0.6 미만

* 출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1농산물표준규격등급도감」, 멜론(2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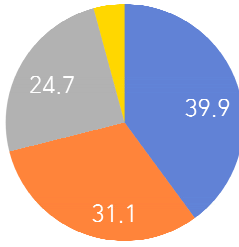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주요 멜론 수출국은 ①홍콩 ②일본 ③대만 순

- 2022년 기준 멜론 수출액은 약 235만 달러(한화 약 29억 9,155만원) 수준
 - 한국산 멜론은 홍콩(39.9%), 일본(31.1%), 대만(24.7%) 등으로 수출
 - 전체 수출액의 90% 이상이 주요 3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표 IV-6> 우리나라 멜론 수출액 현황(2022)

(단위: 천 달러, %)

전 세계		2,350.9
1	홍콩	938.0
2	일본	730.9
3	대만	581.0
4	싱가포르	98.0
5	몽골	1.1
6	아랍에미리트	1.1
7	말레이시아	0.6
8	북마리아나 제도	0.1
9	브루나이	0.1



- 홍콩 39.9
- 일본 31.1
- 대만 24.7
- 싱가포르 4.3

수출액	수출국별 비중
전 세계	2,350.9
1 홍콩	938.0 (39.9%)
2 일본	730.9 (31.1%)
3 대만	581.0 (24.7%)
4 싱가포르	98.0 (4.3%)
5 몽골	1.1 (0.05%)
6 아랍에미리트	1.1 (0.05%)
7 말레이시아	0.6 (0.03%)
8 북마리아나 제도	0.1 (0.005%)
9 브루나이	0.1 (0.005%)

*주: HS코드: 0807.19-9000(멜론과 파파야 기타-기타) 기준

*출처: KATI 농식품수출정보(검색일: 2023.07.06.)

2. 주력 시장현황

가. 수입현황

□ 일본의 주요 멜론 수입국은 ①호주 ②온두라스 ③멕시코 순

- 2022년 일본의 멜론 수입액은 약 1,929만 달러(한화 약 245억 5,617만 원)로, 전년 대비 15.3% 감소함
 - 한국산 멜론 수입액은 약 103만 7,000달러(한화 약 13억 2,010만 원)로 집계되나 참외와 멜론이 포함된 수치로, 실제 멜론 수입액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

〈표 IV-7〉 일본 멜론(참외 포함) 수입금액 추이(2018~2022)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 세계	26,991	25,808	22,455	22,779	19,291	100.0	-15.3	-8.1
1 호주	1,532	3,542	5,951	9,660	7,492	38.8	-22.4	48.7
2 온두라스	2,186	3,827	4,345	3,762	3,599	18.7	-4.3	13.3
3 멕시코	14,671	11,102	5,920	3,673	3,251	16.9	-11.5	-31.4
4 미국	4,798	3,708	4,106	3,229	3,194	16.6	-1.1	-9.7
5 대한민국	596	815	950	1,222	1,037	5.4	-15.1	14.9
6 코스타리카	632	470	485	N/A	442	2.3	N/A	-8.6
7 과테말라	2,565	2,343	617	1,085	262	1.4	-75.9	-43.5
8 이탈리아	12	0	0	N/A	13	0.1	N/A	2.0
9 베트남	0	0	2	N/A	N/A	N/A	N/A	N/A
10 스페인	0	0	80	139	N/A	N/A	N/A	N/A

*주: HS코드: 0807.19-000(멜론과 파파야-기타) 기준으로 집계했으며, 일본은 참외·멜론에 대해 동일한 HS코드를 사용해 한국산 멜론 수입액은 참외 수입액이 함께 집계되었음

*출처: ITC Trademap(검색일: 2023.07.06.)

나. 소비현황

□ 일본 소비자는 멜론을 널리 섭취하고 있으며, 높은 인지도를 보유

- 멜론은 고급 과일로 인식되며 가정 내 섭취용·선물용 등으로 소비함
- 선물용 프리미엄 멜론은 별도의 등급 규격을 마련
 - 프리미엄 멜론인 크라운 멜론과 유바리 멜론은 통상 멜론에 적용되는 규격 대신 별도로 규격을 마련해 판매하고 있음

- 일본 소비자는 멜론을 주로 생식 섭취하며, 디저트의 재료로써 활용 중
 - 씨와 껍질을 제거하고 섭취하며, 당도가 낮은 껍질 주위의 과육은 섭취하지 않음
 - 멜론의 과육과 껍질을 활용한 빙수가 일본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
 - 디저트 전문점·호텔 등에서 여름을 맞아 멜론을 활용한 빙수를 출시함

〈그림 IV-2〉 일본 소비자의 멜론 섭취 방식



*출처: 일본 음식점 소개 사이트(<https://s-style.machico.mu>), 일본 잡지 Vouge Japna(www.vouge.co.jp)(검색일: 2023.07.11.)

다. 유통현황

- 일본 소비자는 주로 일본산 멜론을 소비하며 수입산 멜론의 판매 비중은 저조
 - 주산지 ①이바라키현 ②구마모토현 ③홋카이도산 멜론이 주로 유통되고 있으며, 그 외 일본 각지에서 생산한 멜론 역시 판매 중
 - 한국산 멜론은 비롯한 수입산 멜론은 일본산에 밀려 판매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한국산 멜론’이라고 판매되는 상품은 모두 참외로, 한국산 네트멜론은 판매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임
 - 수입산 멜론은 멕시코산이 주로 유통되고 있으며, 허니듀 멜론이 주로 판매됨
- 멜론은 농산물직판장, 백화점,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채널과 온라인 쇼핑몰로 유통 중
 - (농산물직판장) 가정용·가공용 멜론이 판매 중
 - 생산 농가의 산지 직송 플랫폼 사이트에서는 가정용 멜론이, 도매시장에서는 가정용·가공용 멜론을 모두 판매 중이며 주로 단품이 아닌 2~6개 단위로 판매됨

- **(백화점)** 고품질의 프리미엄 멜론이 선물용으로 인기리에 판매
 - 홋카이도산 유바리 멜론, 시즈오카현산 크라운 멜론 등 고급 멜론 품종으로 알려진 일본산 제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음
 - 선물용 멜론은 주로 나무상자·종이 박스에 완충재와 함께 단독 포장되며, 샤인머스켓 등 다른 고급 과일과 함께 판매되기도 함

〈그림 IV-3〉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선물용 멜론



*출처: 일본 다카시마야·미즈코시 백화점 사이트(www.takashimaya.co.jp/)(www.mistore.jp/)(검색일: 2023.07.11.)

- **(슈퍼마켓)** 가정에서 멜론을 섭취하려는 소비자가 주로 구매함
 -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멜론은 주로 일본산으로 얼스 멜론, 유바리 멜론 등 다양한 품종이 판매 중이며 수입산 멜론은 판매 비중이 높지 않음
 - 또한, 일본 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반으로 절단한 멜론, 먹기 쉽게 껍질을 제거하고 손질한 멜론을 판매하고 있음
 - 가정용 멜론은 주로 랩과 과일망으로 포장되며 일부 선물용 제품 역시 유통 중

〈그림 IV-4〉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멜론



*출처: 일본 이온, 라이프, daiei 슈퍼마켓 사이트(<https://shop.aeon.com/netsuper>)(www.life-netsuper.jp/)(<https://online.daiei.co.jp/>)(검색일: 2023.07.11.)







- **(온라인)** 일본산·수입산 멜론이 모두 판매 중
 -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보다 다양한 품종의 멜론이 판매되고 있으며, 수입산은 주로 허니듀(무네트) 멜론이 판매되고 있음
 - 선물용·가정용 제품이 모두 유통 중이며, 수확 후 바로 배송해 신선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제품이 많음

□ 일본에서 판매되는 멜론은 ①네트 멜론 ②무네트 멜론으로

구분되며, 국내 대비 다양한 품종을 생산·유통 중

- 네트 멜론은 아르스, 크라운, 유바리 등, 무네트 멜론은 프린스, 허니듀, 옐로우 킹 등

〈표 IV-8〉 일본 생산 멜론 품종별 특징

품종명	아르스 영화 멜론(アールス栄華メロン)	
유형	네트 멜론(청육계)	
당도	높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가 풍성하며 과육이 부드러움 - 1.8kg 전후로 대과형 멜론 - 꼭지를 제거하지 않고 판매되는 고급 멜론 - 시즈오카, 이바라키, 치바현에서 주로 생산 	
품종명	크라운 멜론(クラウンメロン)	
유형	네트 멜론(청육계)	
당도	13~14 브릭스 이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즈오카현에서 아르스 멜론을 독자적으로 개량한 품종으로, 1줄기 1과실 원칙으로 생산 - 프리미엄 멜론으로, 통상 머스크 멜론의 등급 규격 대신 후지, 산, 백, 눈 순으로 별도의 규격을 마련 	
품종명	유바리 멜론(夕張メロン)	
유형	네트 멜론(적육계)	
당도	11~13 브릭스 이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육이 매우 부드러우며, 향기가 뛰어난 - 6월 8월에 걸쳐 집중 출하됨 - 특수, 수, 우, 양 순으로 독자적인 규격으로 판매 - 주요 산지는 홋카이도로 지역 특산품으로 유명 	
품종명	프린스 멜론(プリンスメロン)	
유형	무네트 멜론(청육계)	
당도	15~17 브릭스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맛이 강하고 과즙이 풍부하나, 향기는 강하지 않음 - 중량은 500g~700g으로, 비교적 작은 멜론에 속함 - 맥아우리(참외)와 머스크멜론을 교배한 품종으로, 일본에서 대중적인 멜론으로 통했으나 품종이 다양해지며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 	
품종명	허니듀 멜론(ハネデューメロン)	
유형	무네트 멜론(청육계)	
당도	12~16 브릭스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7~10월), 멕시코(11월~6월) 등에서 수입하여 판매 - 다른 멜론 대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음 - 과육은 유백색 또는 엷은 녹색, 과형은 타원형으로 형성 	
품종명	옐로우 킹 멜론(イエローキングメロン)	
유형	무네트 멜론(황육계)	
당도	14~15 브릭스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형~장구형으로 과형이 다양함 - 과피는 짙은 노란색을 띠며, 수확기가 다가올수록 과육이 반투명해짐 - 높은 당도와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 	

*출처 과일 품종 정보 조회 사이트(<https://foodslink.jp/syokuzaihyakka>)(검색일: 2023.07.12.)


라. 제품현황

□ 다양한 품종의 일본산 멜론 판매 중

- 일본산 멜론은 주로 산지와 품종을 강조
 - 홋카이도, 시즈오카현 등 멜론 산지로 유명한 지역의 특산품임을 강조함
 - 재배·유통되는 품종이 다양해, 제품의 판매페이지에 품종별 특징을 상세히 기술하거나 다른 품종과의 비교를 통해 자사 제품을 마케팅함
- 주로 종이 박스로 포장되며, 비닐 랩으로 개별 포장한 제품도 판매됨
 - 2개 이상의 멜론을 판매하는 경우 종이 박스를 사용하며, 3과 이상의 경우에는 완충재를 난좌형식으로 바닥에 배치하고 멜론을 적재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됨
 - 오프라인 매장에서 개별 판매되는 멜론은 주로 비닐 랩으로 감싸고 종이·과일망과 같은 완충재로 포장함
- 일본산 멜론은 청육·적육계 네트형 멜론이 주로 판매됨
 - 외관에 결함이 있으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는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기도 함
 - 무네트형 멜론의 경우, 주로 프린스 멜론이 판매되고 있음

〈표 IV-9〉 일본 멜론 유통 현황-일본산

제품사진			
원산지	일본	일본	일본
가격	4,000엔 (한화 약 3만 6,679원)	5,400엔 (한화 약 4만 9,516원)	4,000엔 (한화 약 3만 6,679원)
중량(수량)	3개	2~3개(4kg)	4~5개(5kg)
포장 형태	종이 박스 포장	종이 박스 포장	종이 박스 포장
홍보키워드	‘다양한 품종’, ‘친환경 재배’, ‘저농약’	‘저농약’, ‘건강한 과일’, ‘홋카이도산’, ‘유바리멜론’	‘아미가타현산’, ‘츠루히메 멜론’
제품사진			
원산지	일본	일본	일본
가격	9,000엔 (한화 약 8만 2,528원)	3,980엔 (한화 약 3만 6,495원)	2,980엔 (한화 약 2만 7,326원)
중량(수량)	2개(2.8kg)	3~4개(7kg)	1개(1.5kg)
포장 형태	종이 박스 포장	종이 박스 포장	종이 박스 포장
홍보키워드	‘홋카이도산’, ‘대과’, ‘유바리 멜론’	‘홋카이도산’, ‘저농약’, ‘높은 당도’, ‘대과’	‘시즈오카산’, ‘대과’, ‘1덩굴 1과 수확’

제품사진			
원산지	일본	일본	일본
가격	3,800엔 (한화 약 3만 4,845원)	842엔 (한화 약 7,720원)	6,500엔 (한화 약 5만 9,603원)
중량(수량)	3개(4~5kg)	1개	4~5개(8kg)
포장 형태	종이 박스	비닐 랩 포장	종이 박스
홍보키워드	‘산지 엄선’, ‘못난이 멜론’, ‘고당도’	‘국내산’	‘대과’, ‘야마가타산’, ‘산지직송’

*출처: 일본 온라인 유통채널 Rakuten(www.rakuten.co.jp), Yahoo 쇼핑(www.shopping.yahoo.co.jp), 일본 슈퍼마켓 Aeon(https://shop.aeon.com)(검색일: 2023.07.12.)

□ 일본에서 판매되는 수입산 멜론은 주로 허니듀 멜론

- 멕시코·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허니듀 멜론이 주로 판매됨
 - 서양권에서 인기있는 멜론임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며, 일본산 멜론에서 보기 힘든 흰색 과육 멜론임을 강조함
 - 또한, 허니듀 멜론의 당도 검사 사진을 판매 페이지에 게시하며, 당도가 높은 멜론임을 알림
 - 주로 5~6개입 10kg 박스로 판매되고 있으며, 박스 내부에는 골판지를 완충재로 사용함
 - 오프라인 채널에서는 잘 판매되지 않으며,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주로 유통됨

<표 IV-10> 일본 참외 유통 현황-경쟁제품

제품사진			
원산지	멕시코·미국	멕시코	멕시코
가격	7,980엔 (한화 약 7만 3,175원)	9,980엔 (한화 약 9만 1,514.원)	7,800엔 (한화 약 7만 1,524원)
중량(수량)	5~6개(10kg)	5~6개(10kg)	5~6개(10kg)
포장 형태	종이 박스 포장	종이 박스 포장	종이 박스 포장
홍보키워드	‘허니듀 멜론’, ‘하얀색 멜론’, ‘해외 인기 멜론’	‘허니듀 멜론’, ‘해외 인기 멜론’, ‘고당도’	‘허니듀 멜론’, ‘고당도’

*출처: 일본 온라인 유통채널 Rakuten(www.rakuten.co.jp), Yahoo 쇼핑(www.shopping.yahoo.co.jp)(검색일: 2023.07.10.)

3. 개척 시장현황

가. 수입현황

□ 2022년 기준 최근 5년간 호주의 멜론 수입액은 매우 미미한 수준

- 호주는 멜론의 순 수출국으로, 멜론을 거의 수입하지 않음
 - 최근 5년간 2018년, 2019년에는 뉴질랜드로부터, 2021년에는 인도로부터 멜론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뉴질랜드 총 1,700달러(한화 약 216만 원), 인도 총 1,000달러(한화 약 127만 원) 수준에 불과
 - 한국산의 경우 검역 미타결로 아직까지 정식 수입되지 않음

〈표 IV-11〉 호주 멜론 수입금액 추이(2018~2022)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 세계		5	12	0	1	0	N/A	-100.0	N/A
1	뉴질랜드	5	12	0	N/A	N/A	N/A	N/A	N/A
2	인도	0	0	0	1	N/A	N/A	N/A	N/A

(단위: 천 달러, %)

*주1: HS코드: 0807.19-000(멜론과 파파야-기타) 기준

*주2: N/A는 해당사항(또는 해당값) 없음을 의미

*출처: ITC Trademap(검색일: 2023.07.06.)

나. 소비현황

□ 호주의 멜론 소비량은 다른 주요 과일 대비 낮은 편

- 호주 소비자는 연간 1인당 머스크멜론 1.78kg 소비¹²⁾

〈표 IV-12〉 호주 1인당 멜론 소비량 추이(2019~2021)

2019/20	2020/21		2021/22	
	kg	YoY(%)	kg	YoY(%)
1.63	2.15	31.9	1.78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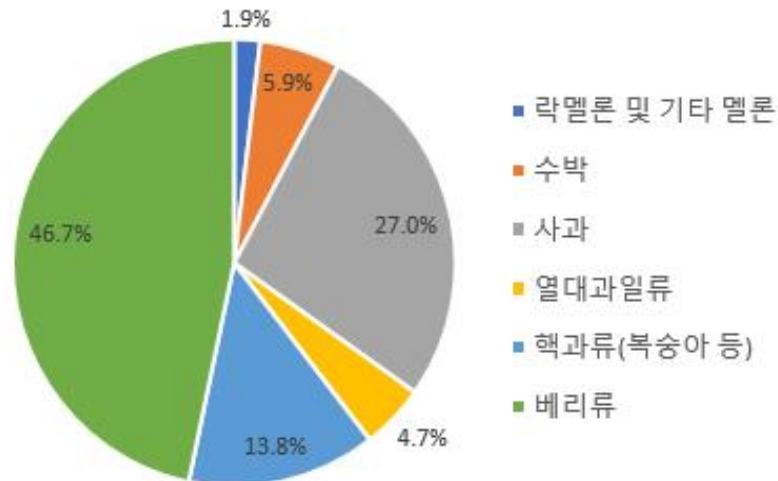
*주: 전년도 하반기와 당해연도 상반기 합계 기준

*출처: Australian Horticulture Statistics Handbook 2021/22(Hort Innovation)(검색일: 2023.07.12.)

12) 2021년 7월~2022년 6월로 총 12개월 집계 기준

- 호주 원예혁신협회에 따르면, 주요 과일 시장에서 멜론의 시장 점유율은 1.9%로 미미한 수준
 - 이는 주요 과일 6개 품목 중 6위 수준이며, 호주 소비자는 베리류(46.7%), 사과(27.0%) 등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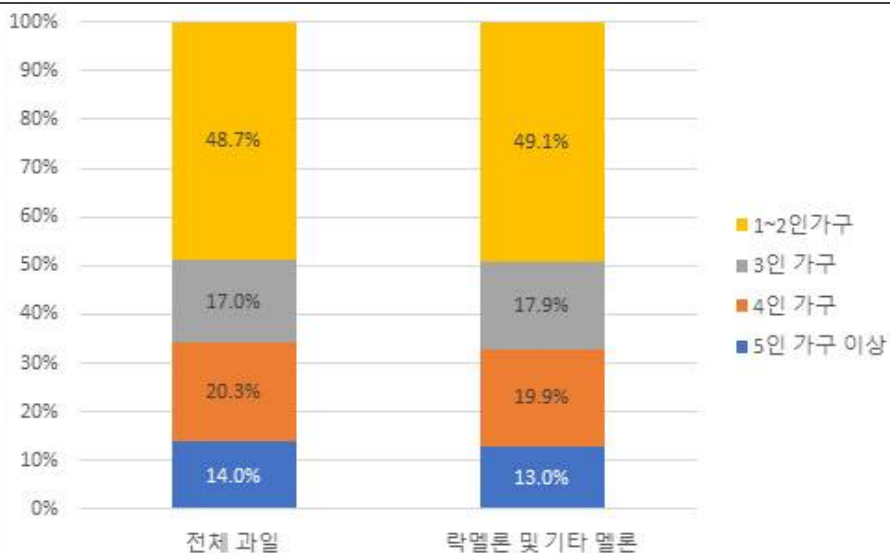
<그림 IV-5> 호주 멜론 과일시장 점유율



*출처: Rockmelon and other melons Report(Hort Innovation)(검색일: 2023.07.12.)

- 호주 가정의 34%가 2022년 6월 기준 최근 1년간 최소 1번 멜론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1~2인 가구에서 전체 멜론의 49.1%를 구매하는 등 구매 비중이 높게 나타남

<그림 IV-6> 호주 가구원 수별 멜론 구매현황



*출처: Rockmelon and other melons Report(Hort Innovation)(검색일: 2023.07.12.)

□ 호주 소비자는 멜론을 주로 생식 섭취하며 디저트, 샐러드 등 각종 요리의 재료로 활용

- 껍질과 씨앗을 제거하고 생식 섭취하며, 그 외 멜론 샐러드, 멜론 프로슈토 등의 음식의 재료로 섭취함
- 신선 멜론과 허브를 함께 섭취하는 멜론 프로슈토가 호주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각종 허브를 첨가한 멜론 프로슈토 꼬치 역시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끌

<그림 IV-7> 호주의 멜론 섭취 방법



*출처: 호주 멜론협회(www.melonsaustralia.org.au), 호주 잡지 매체 Women's Weekly(www.womensweeklyfood.com.au)(검색일: 2023.07.14.)

다. 유통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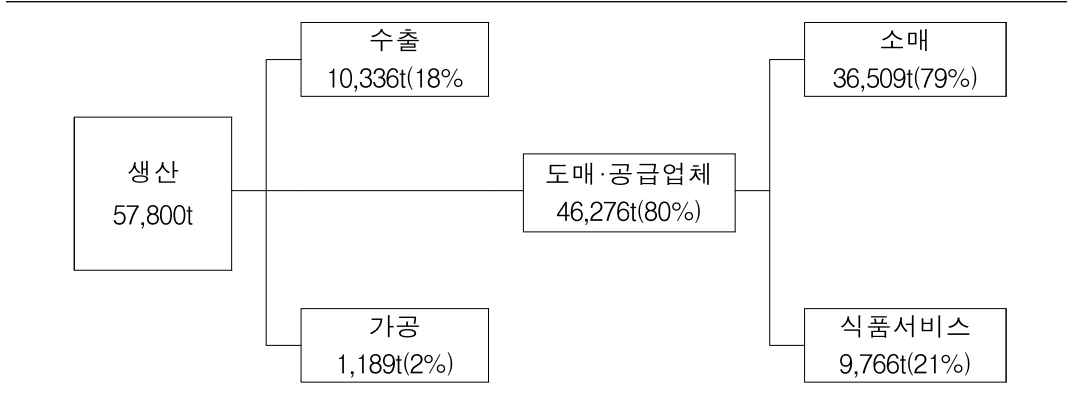
□ 호주산 멜론은 연중 유통되고 있으며, 현지 대형 유통채널·농산물 직판장을 통해 판매

- 호주에서 생산된 멜론은 대부분 도매시장을 통해 대형 유통채널에 공급
 - 농부가 직접 수확한 멜론을 농가 판매사이트를 통해 유통하기도 함
 - 울월스(Woolworths), 콜스(Coles) 등 현지 대형 유통채널에서 신선 멜론을 구매 가능
 - 호주에서 생산된 멜론은 주로 도매시장을 거쳐 소매 채널(79%)에 판매되며, 21%는 식품서비스업체로 유통됨
- 주요 슈퍼마켓¹³⁾에서 전체 멜론 소매 매출의 70.7%가 발생
 - 3개 브랜드를 제외한 일반 슈퍼마켓¹⁴⁾에서 소매 매출의 8.9%가 발생함

13) Coles, Woolworths, Aldi를 포함

14) 주요 슈퍼마켓 Coles, Woolworths, Aldi를 제외한 다른 풀-서비스 슈퍼마켓

〈그림 IV-8〉 호주 멜론 유통경로



*출처: Australian Horticulture Statistics Handbook 2021/22(Hort Innovation)(검색일: 2023.07.12.)

□ 슈퍼마켓에서 연중 구매할 수 있으며, 농산물직판장을 통해 저렴하게 유통 중

- (슈퍼마켓) 가정용 멜론이 판매되고 있으며, 3~6호주달러(한화 약 2,610원~한화 약 5,220원) 수준에서 판매 중
 - Woolworths, Coles 등 슈퍼마켓에서 유통되는 멜론은 주로 호주산 멜론이 판매되며, 캔달루프·허니듀 멜론 등 2~4개 품종이 판매됨
 - 멜론은 주로 단품으로 판매되며, 별도의 포장 없이 원물 판매됨
 - 절단한 멜론은 냉장 보관하여 판매하기도 하며, 절단하지 않은 멜론은 상온에서 매대에 진열해 판매함

〈그림 IV-9〉 호주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멜론



*출처: Melon food Safety: A best practice guide for rockmelon and specialty melons(Hort Innovation), 호주 슈퍼마켓 taste growers market(<https://tastegrowersmarket.com.au/fruit/>)(검색일: 2023.07.12.)

- (농산물직판장) 파머스 마켓 및 농가 자체 판매사이트를 통해 멜론을 구입
 - 슈퍼마켓과 동일하게 멜론은 주로 단품으로 판매되며 판매사이트에서 예약제로 판매하기도 함
 - 파머스 마켓에서 유통되는 멜론은 별도의 포장 없이 원물이 판매되고


있으며, 캔달루프·허니듀 멜론 외에도 산타클로스 멜론 등 특수 멜론 유통

○ (온라인) 판매되는 품종이 비교적 다양하며, 반으로 절단한
하프 멜론도 유통됨

- 호주 소비자가 대중적으로 섭취하는 허니듀·캔달로프 멜론 외에도 옐로우
허니듀 멜론, 산타클로스 멜론 등 여러 종류의 특수 멜론이 판매되고 있음

□ 호주 소비자는 주로 캔달로프(Cantaloupe), 허니듀(Honey dew) 멜론을
소비하며, 그 외 특수 멜론 품종이 유통 중

〈표 IV-13〉 호주 생산 멜론 품종별 특징

품종명	캔달로프(Cantaloupe, rockmelon)	
유형	네트 멜론	
당도	-	
특징	- 연중 출하되며 11월~3월에 출하가 집중됨 - 한국산 멜론 수출검역 타결 대상품목 - 과육이 주황색이며, 달콤하고 과즙이 풍부함 - 과일 크기가 균일하며, 그물 형성이 우수함	
품종명	허니듀(Honey dew)	
유형	무네트 멜론	
당도	12~16 브릭스	
특징	- 연중 출하되며, 1월~2월에 출하가 집중됨 - 과육이 두껍고 흰녹색을 띠고 있음 - 과즙이 풍부함	
품종명	산타클로스 멜론(Piel de Sapo)	
유형	무네트 멜론	
당도	-	
특징	- 개구리 스킨 멜론(Frog skin melon), 스페인 멜론(Spain melon), Piel do sapo 등의 명칭으로도 판매 - 과육이 희며 껍질에는 녹색의 세로 줄무늬가 형성됨 - 세로로 긴 타원형 모양	
품종명	오렌지 캔디 멜론(Orange Candy Melon)	
유형	무네트 멜론	
당도	16.5 브릭스	
특징	- 과피와 과육 모두 노란색을 띰 -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뛰어남 - 다른 멜론 품종보다 과육이 단단해 아삭한 식감	

*출처 멜론 품종 정보 조회 사이트(<https://foodslink.jp/syokuzaihyakka>), 식품기업 Agroponiente(www.agroponiente.com)
(검색일: 2023.07.12.)

- 호주산 멜론은 연중 생산 및 출하되며 주로 2~3월에 집중적으로 공급
 - 락멜론은 5~7월에 공급량이 가장 낮으며 2~3월에 공급량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 허니듀 멜론 역시 연중 생산되며, 7~10월에 공급량이 집중됨
 - 산타클로스 멜론은 2~4월간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4〉 호주 멜론 월별 공급 현황

품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락멜론 (Rockmelon)												
허니듀 (Honeydew)												
산타클로스 멜론 (Piel de Sapo)	-				-	-	-	-	-	-	-	-

*출처: Australian Horticulture Statistics Handbook 2021/22(Hort Innovation)(검색일: 2023.07.21.)

- 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 호주에서 유통되는 멜론의 소매 가격은 평균 4.9호주달러(한화 약 4,263원) 수준¹⁵⁾
 - 신선 멜론(Rockmelon)의 소매 가격은 5.9호주달러(한화 약 5,133원) 수준
 - 신선 허니듀 멜론의 소매 가격은 3.9호주달러(한화 약 3,393원) 수준으로 나타남
- 호주에서 유통되는 멜론은 외관·해충 등의 품질기준 준수 필요
 - 외관, 주요 결함 및 세부 결함 기준을 준수한 멜론이 호주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음

15) 「主要都市におけるメロンの市場価格調査(주요 도시 멜론 시장 가격 조사)」 일본 JETRO(www.jetro.go.jp)(검색일: 2023.07.21.)

〈표 IV-15〉 호주 청과물 산업 회의소의 락멜론 품질 기준



품종	유형	기준	
Tropical Green	외관	색택	밝은 갈색의 네트와 황록색~노란색의 과피, 껍질 아래 균일한 녹색의 과육 보유
		외관	섬세한 네트와 가장자리가 부드럽고 토양 및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함
		향미	달콤하고 부드러운 과육과 강한 향이 나야 하며, 상한 것 같은 맛·냄새가 없어야 함
		과형	균일한 원형이어야 하며 뾰족한 꼭지가 있거나 완전히 제거해야 함
		크기	사전에 요청된 크기에 따라야 함
		숙도	1/2~3/4 지점에서 당도가 10 브릭스 이상이어야 함
	주요 결함	해충	곤충의 증거가 존재함
		질병	곰팡이 또는 세균성 썩음병(탄저병(Anthracnose), 푸른 곰팡이병(Blue Mould))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변형된 모양이나 얼룩이 있음
		상처	상처, 갈라짐, 구멍 또는 균열이 있는 경우
			타박상 및 손상된 부위가 있는 경우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1mm 깊이로 있는 경우
Tropical Green	주요 결함	온도	냉장 보관으로 인해 물에 젖거나 이로 인한 상처가 있는 경우 심하게 표백되거나 햇빛에 그을린 상처가 있는 경우
		생리학적 장애	갈라지거나 변색된 부위에 진한 색의 반점 등이 있는 경우
			과숙 등으로 인해 내부가 분해되거나 액체화 되는 경우
	세부 결함	상처	치유된 결함으로 인한 흉터의 깊이가 1mm 이상이거나 너비가 2cm인 경우
		온도	햇빛에 의해 표백된 부위가 4cm ² 이상인 경우
		생리학적 결함	줄기 상처로 인해 갈라짐이 있는 경우
			꼭지의 길이가 5mm를 초과하는 경우
		자국, 결점	땅에 닿아있던 흔적이 전체 표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산발적인 깊이 1mm 미만의 모래 자국 등 가벼운 상처 자국이 있는 경우
		Tropical Green	외관
외관	네트가 균일해야 하며, 작고 견고한 씨앗 및 토양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함		
향미	달콤하고 부드러운 과육과 강한 향이 나야 하며, 상한 것 같은 맛·냄새가 없어야 함		
과형	균일한 원형이어야 하며 뾰족한 꼭지가 있거나 완전히 제거해야 함		
크기	사전에 요청된 크기에 따라야 함		
숙도	1/2~3/4 지점에서 당도가 10 브릭스 이상이어야 함		
주요 결함	해충		곤충의 증거가 존재함
	질병		곰팡이 또는 세균성 썩음병(탄저병(Anthracnose), 푸른 곰팡이병(Blue Mould))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변형된 모양이나 얼룩이 있음
	상처		상처, 갈라짐, 구멍 또는 균열이 있는 경우
			타박상 및 손상된 부위가 있는 경우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1mm 깊이로 있는 경우
온도	냉장 보관으로 인해 물에 젖거나 이로 인한 상처가 있는 경우		
	심하게 표백되거나 햇빛에 그을린 상처가 있는 경우		
생리학적 장애	갈라지거나 변색된 부위에 진한 색의 반점 등이 있는 경우		
	과숙 등으로 인해 내부가 분해되거나 액체화 되는 경우		
세부 결함	상처	치유된 결함으로 인한 흉터의 깊이가 1mm 이상이거나 너비가 2cm인 경우	
	온도	햇빛에 의해 표백된 부위가 4cm ² 이상인 경우	
	생리학적 결함	줄기 상처로 인해 갈라짐이 있는 경우	
		꼭지의 길이가 5mm를 초과하는 경우	
자국, 결점	땅에 닿아있던 흔적이 전체 표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산발적인 깊이 1mm 미만의 모래 자국 등 가벼운 상처 자국이 있는 경우		

*출처: 「Market Produce Specifications: Rockmelon (Reticulatus)」, 호주 청과물 산업 회의소(The Australian Chamber of Fruit & Vegetable Industries Limited)(www.freshmarkets.com.au/),(검색일: 2023.07.14.)

라. 제품현황

- 캔달로프, 허니듀 멜론의 판매 비중이 높으며, 그 외 산타클로스·오렌지 캔디 멜론 등 특수 멜론 역시 판매되고 있음
 - 호주산 멜론은 주로 호주에서 재배·생산한 제품임을 강조
 - 호주의 주요 슈퍼마켓 체인인 Woolworths, Coles 등은 호주산 제품임을 강조하기 위해 제품에 ‘호주에서 재배’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함
 - 통 멜론 혹은 절반으로 절단한 멜론의 판매 비중이 높으며, 절단 멜론 제품은 랩으로 포장해 판매되고 있음
 - 껍질과 씨를 제거한 뒤 절단해 섭취 시 편의성을 높인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캔달로프, 허니듀 멜론 등 여러 품종의 멜론은 함께 판매하는 ‘멜론 믹스(Melon Mix)’ 제품이 판매 중
 - 주로 캔달로프, 허니듀 멜론이 판매되고 있으며 특수 멜론 품종으로는 오렌지 캔디 멜론, 산타클로스 멜론, 옐로 허니듀 멜론 등이 주로 판매됨
 - 특수 멜론은 식감과 맛을 설명하는 자세히 설명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중적인 멜론인 캔달로프·허니듀 멜론의 경우 당도를 중점적으로 홍보함

<표 IV-16> 호주 멜론 유통제품 현황-1

제품사진			
원산지	호주	호주	호주
가격	5.90호주달러 (한화 약 5,133원)	2.95호주달러 (한화 약 2,566원)	4.50호주달러 (한화 약 3,915원)
중량(수량)	1개	1개(반쪽)	200g
포장 형태	-	랩 포장	플라스틱 용기 포장
홍보키워드	'호주산', '달콤함'	'호주산', '당일 절단 당일 판매'	'즉시 섭취용', '호주산', '건강 별점 5점'
제품사진			
원산지	호주	호주	호주
가격	5.99호주달러 (한화 약 5,212원)	2.95호주달러 (한화 약 2,566원)	6.99호주달러 (한화 약 6,082원)
중량(수량)	1개	1개(반쪽)	1개
포장 형태	-	랩 포장	-
홍보키워드	'비타민 C 함유', '칼륨 풍부'	'호주산', '고당도'	'고당도'
제품사진			
원산지	호주	호주	호주
가격	6.99호주달러 (한화 약 6,082원)	6.99호주달러 (한화 약 6,082원)	5.99호주달러 (한화 약 5,212원)
중량(수량)	600g	1개	1개
포장 형태	플라스틱 용기 포장	-	-
홍보키워드	'멜론 믹스'	'과즙 풍부', '고당도', '완벽한 후숙'	'당일 수확', '과즙 풍부', '아삭아삭한 과육'

*출처: 호주 슈퍼마켓 Woolworth(www.woolworths.com.au), Coles(www.coles.com.au), harris farm(www.harrisfarm.com.au), 온라인 유통채널 fruitezy(https://fruitezy.com.au), 농산물직판장 Orange Melon(https://orangecandy.com.au/)(검색일: 2023.07.13.)

V. 시사점

1. 시장현황 분석

가. 참외

- 주요 참외 수출국인 일본에서 한국산 참외는 인지도가 제고되고 있으며 일본 소비자는 참외의 외관과 식감·향미를 선호

〈표 V-1〉 국가별 참외 시장현황 비교

구분		세부 내용
일본	수입현황	- 주요 수입국: 대한민국
	소비현황	- 한국의 특산품, 한국 소비자가 여름에 주로 섭취하는 과일로 알려짐 - 참외 섭취 경험을 보유한 현지 소비자와 한국 교민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한국 콘텐츠에 참외가 자주 노출되며 참외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음 - 올바른 섭취방법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판매 시 섭취방법을 안내하는 제품이 다수 존재함
	유통현황	- (오프라인) 날개 포장 제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한인마트와 농산물직판장에서 유통 중 - (온라인) 날개 제품보다 2~5kg 제품 등 대량판매하는 제품이 주로 유통 중
	제품현황	- (한국산) 한국의 대표 여름 과일임을 강조하는 제품이 많으며, 섭취 방법과 특유의 식감을 홍보함. 참외 특유의 식감과 맛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소비자 후기가 다수 존재 - (일본산) 주로 농산물직판장에서 구할 수 있으며, 농가 자체 판매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음. 시가현에서 생산된 황금참외와 은천참외가 유통 중
호주	수입현황	- 2022년 기준 참외 수입 없음
	소비현황	-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참외 소비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호주 소비자의 인지도 역시 매우 저조한 실정 - 일부 한국 교민들이 참외 판매처를 문의하는 등, 교민 위주로 수요는 형성되어 있음 - 한국 교민 사이에서 참외의 대체재로 황금멜론, 산타클로스 멜론 등이 소개되고 있음 - ‘이국적인 과일’ 이 호주 현지 소비자의 과일 섭취 트렌드로 부상
	유통현황	- (오프라인) 호주 소비자는 주로 신선 과일을 슈퍼마켓을 통해 구매함 -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은 직판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대비 종류가 다양하며, 일부 수입산 과일 역시 유통 중 - 농산물직판장에서는 주로 제철 호주산 농산물이 판매됨 - 주로 청과물 전문점에서 수입산 과일 유통비중이 높은 편 - (온라인) 열대과일 등 수입산 과일의 유통비중이 높으며, 주로 ‘이국적인 과일’ 판매 탭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음

나. 멜론

□ 멜론은 호주 소비자가 대중적으로 섭취하는 과일로, 락멜론, 허니듀, 산타클로스 멜론 등에 친숙함

〈표 V-2〉 국가별 멜론 시장현황 비교

구분		세부 내용
일본	수입현황	- 2022년 기준 주요 수입국은 호주(38.8%), 온두라스(18.7%), 멕시코(16.9%) 순으로, 한국은 5위(5.4%)를 기록
	소비현황	- 고급과일로 인식되며 선물용, 가정 내 소비용으로 주로 소비함 - 유통되는 품종이 매우 다양하며, 프리미엄 품종(유바리, 크라운 멜론)과 대중적으로 섭취하는 멜론(프린스 멜론 등)의 인지도가 높음 - 생식 섭취 외에도 멜론 빙수 등 디저트의 재료로 활용도가 높음
	유통현황	- 주로 일본산 멜론이 유통되고 있으며, 수입산 멜론은 멕시코·미국산 허니듀 멜론이 주로 판매 - (농산물직판장) 가정용·가공용 멜론이 유통 중, 주로 대량 판매함 - (백화점) 선물용 멜론 판매 비중이 높으며 주로 일본산 제품을 판매 - (슈퍼마켓) 가정용 멜론이 주로 판매되며, 일부 제품에 한해 선물용으로 판매되기도 함 - (온라인) 일본산, 수입산 멜론이 모두 유통되고 있으며, 판매되는 품종이 오프라인 대비 다양함
	제품현황	- (일본산) 종이 박스로 포장한 제품이 주로 판매되며, 주로 네트형 청육·적육계 멜론을 판매 - 주로 산지를 강조하며, 생산과정을 자세히 전달해 스토리텔링을 전달하는 제품이 주로 판매됨 - (수입산) 미국·멕시코산 허니듀 멜론이 주로 판매되고 있음 - 단품보다 5~6개입 10kg 박스로 포장된 제품의 유통비중이 높음
호주	수입현황	- 호주 농수산임업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호주는 멜론을 수입하지 않음
	소비현황	- 대중적인 과일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으나 베리류·사과 대비 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 - 호주 가정의 34%가 연간 1회 이상 멜론 구매 경험을 보유 - 1~2인 가구의 구매 비중이 높으며, 이에 따라 절반·1/4로 절단한 멜론이 다수 판매되고 있음 - 멜론은 샐러드, 디저트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있음
	유통현황	- 멜론은 연중 유통되고 있으며, 주로 슈퍼마켓을 통해 판매 중 - (슈퍼마켓) 주로 가정용 멜론이 판매되고 있으며, 캔달로프, 허니듀, 산타클로스 멜론 등이 판매 중 - (농산물직판장) 오렌지캔디 멜론 등 특수 멜론의 판매 비중이 높으며 주로 단품으로 판매하고 있음 - (온라인) 반으로 절단한 멜론이 판매되며, 멜론 품종 종류가 다양함
	제품현황	- (호주산) 주요 품종은 캔달로프, 허니듀 멜론이 판매되며, 특수 멜론은 주로 산타클로스 멜론, 옐로 허니듀 멜론이 판매 - 여러 품종의 멜론을 손질한 뒤 절단해 함께 판매하는 ‘멜론 믹스’ 제품이 인기 - 1~2인 가구를 위한 절단한 멜론이 다수 판매되고 있음 - 캔달로프, 허니듀 멜론은 고당도 멜론임을 강조하며, 특수 멜론은 제품의 식감과 맛을 자세히 설명함

2. 한국산 경쟁력 확보 방안

가. 참외

□ 참외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으로 상품 소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지도 제고 및 섭취 방안 강구

- 호주 소비자들은 참외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이미지 구축 필요
 - 시장 진입 초기 홍보전략으로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새로움’, ‘이국적인 과일’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예를 들면, ‘참외는 한국의 고유 과일로 비타민과 무기질을 풍부하게 함유한 식품적 가치가 높은 과일’,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특이하고 희귀한 프리미엄 과일’의 이미지 등 구축 필요
- 시식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상품화 고려
 -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은 참외를 손쉽게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소포장, 혼합포장 상품 개발이 필요함
 - 호주 소비자들은 참외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진출 초기에는 참외에 대한 홍보와 직접 맛볼수 있는 시식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
 - 예를 들면, 바이어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참외를 알리고, 소통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매장시식코너 운영’ 추진
 - 저명인사,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이벤트성 행사를 통해 참외에 대한 소비자 인식 확대가 필요
 - 일반적으로 새로운 시장개척의 경우 수출물량의 10% 정도를 홍보 시식용으로 감안하고 이에 대한 현지 소비기반을 확대
- 시장 특성에 적합한 현지화 전략 요구
 - 호주는 신선과일 생산 강국이며, 대부분 자국산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출 초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짐
 - 시장개척을 위해 진출 초기 현지구매자를 대상으로 소비분석, 한국산 수입 바이어 의견 등 면밀한 시장조사 진행 필요
 - 최근 과일 소비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소형패키지 제품개발, 혼합과일,

참외를 활용한 레시피 확산 등 현지에 맞는 전략이 필요

□ 고품질, 고품격 제품으로 이미지 확대

- 새로운 과일로 인식될 수 있는 참외는 호주 시장에서 기회로 작용
 - 이국적인 식품에 호기심을 가지고 선호하는 호주 소비자의 특성 상, 새로운 과일의 등장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하지만 호주 소비자는 참외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관계로, 시장진출 초기에는 지속적으로 참외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함
 - 신선과일의 경우 소비자들은 가격보다 제품의 질을 생각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이미지가 진출 초기 시장 확대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이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패턴, 소비유형, 개선과제 등을 통해 고급화 이미지를 구축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

나. 멜론

□ 한국 멜론은 호주 현지에서 한류 문화 확산과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산에 대한 소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

- 신선과일의 특성상 수출 시 균일한 품질관리와 시식을 통한 인지도 확대 필요
 - 호주 내에서 김치, 알로에 음료 등 한국식품에 대한 건강한 이미지로 인해 호주 소비자의 한국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소비자들은 특히 신선과일에 있어서 원산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므로 한국산 신선과일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이 필요
 -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 신선과일을 구매하는 주요 이유가 ‘국가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안전한 식품’이라는 인식으로 호주에서 품질 차별화 전략에 기초해 접근해야 함
 - 호주 멜론과 차별성을 갖춘 품질 물량 공급 이외에도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 확보 노력이 요구됨
 - 현지 유통채널 확대 등으로 소비자에게 한국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한류와 연계된 판촉 및 시식행사가 병행되어야 함

○ 품질 홍보 및 포장 차별화 전략 필요

- 한국산 멜론은 품질 대비 인지도가 낮으므로, 호주산 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한국 멜론에 대한 품질 홍보가 필요함
- 최근 호주 내에서도 지속가능성,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친환경적인 포장재에 관심이 높아짐
- 차별화된 포장 디자인, 적절한 가격 정책 등을 통해 프리미엄 전략 추진
- 한국 멜론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IT기술을 활용하여 생산, 포장, 유통 등 손쉽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QR코드 제공 고려
- 호주에서는 한국 멜론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도가 낮아, 모양과 당도, 크기 등 현지 경쟁 멜론과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이 요구됨
- 최근 신선과일에 대한 브랜드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향후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품질에 기반한 브랜드 전략 수립 필요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1	한국산 참외와 멜론 12월부터 호주로 수출 가능, KATI 농식품수출정보(2023.06.28.)
2	호주 농수산업부 홈페이지(www.agriculture.gov.au)
3	Oriental melon and rockmelon fruit from Korea: biosecurity import requirements final report, 호주 농수산업부
4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5	대한민국 종자 기업 더기반(www.thekiban.com)
6	대한민국 종자 기업 피피에스(www.ppsseed.co.kr)
7	2021 농산물 표준규격 등급도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8	KATI 농식품 수출정보(www.kati.net/index.do)
9	ITC Trademap(www.trademap.org)
10	일본 온라인 유통채널 라쿠텐(www.rakuten.co.jp)
11	일본 현지 소비자 블로그(https://kosamam.com/korea-topic/makuwa-melon-review/)
12	일본 현지 소비자 블로그(https://ameblo.jp/gohanclub/entry-12622524595.html)
13	일본 현지 소비자 블로그(https://seoulmasil.com/koreanmelon/)
14	일본 현지 소비자 블로그(https://www.tokyohiroba.com/641)
15	일본 요리 유튜버 kawahara 채널(https://www.youtube.com/@inakasoba-kawahara)
16	일본 뉴스매체 Sirabee(https://sirabee.com/)
17	일본 현지 보시자 블로그(www.morimorihouse.hatenablog.com)
18	과일 품종 정보 사이트(https://foodslink.jp/syokuzaihyakka)
19	일본 온라인 유통채널 야후 쇼핑(www.shopping.yahoo.co.jp)
20	Fancy a mangosteen or a jujube? The exotic fruit branching across regional Australia, The Canberra Times(2023.05.15.)
21	rambutans and mangosteens are the premier tropical fruits. Use them to bring a touch of the exotic East to your kitchen, TASTE
22	The popularity of a unique exotic fruit set to soar in Australia in coming seasons, FreshPlaza(2022.02.14.)
23	Australian Horticulture Statistics Handbook 2021/22, Hort Innovation
24	Retail in Australia, Euromonitor
25	Best-Rated Supermarket Fruits & Vegetables, Canstar Blue
26	호주 뉴스매체 Choice(www.choice.com.au/food)
27	호주 뉴스매체 The conversation(www.theconversation.com)
28	호주 뉴스매체 Daily Telegraph(www.dailytelegraph.com.au/)
29	호주 과일 판매 전문점 Fruitezy(https://fruitezy.com.au/)
30	호주 과일 판매 전문점 Greenland Grocer(www.greenlandsgrocer.com.au)
31	Which supermarket has the cheapest groceries?, Choice(2021.10.21.)
32	동남아서 시장성 확인... ‘백자·노을’ 신품종으로 시장개척 박차, 한국농어민신문(2022.12.16.)
33	춘천 하니원 멜론 ‘신비팜’, MS TODAY(2020.06.13.),
34	멜론의 종류와 주요 품종, 농촌진흥청
35	일본 음식점 소개 사이트(https://s-style.machico.mu)

36	일본 잡지 매체 vouge(www.vouge.co.jp)
37	전남농기원, 나주 세지멜론 일본 첫 수출, 농축산신문(2023.05.16.)
38	일본 다카시마야 백화점(www.takashimaya.co.jp/)
39	일본 미츠코시 백화점(www.mistore.jp)
40	일본 슈퍼마켓 이온(https://shop.aeon.com/netsuper)
41	일본 슈퍼마켓 라이프(www.life-netsuper.jp/)
42	일본 슈퍼마켓 daiei(https://online.daiei.co.jp/)
43	Rockmelon and other melons Report, Hort Innovation
44	호주 멜론협회(www.melonsaustralia.org.au)
45	호주 잡지 매체 Women' s Weekly(www.womensweeklyfood.com.au)
46	Melon food Safety: A best practice guide for rockmelon and specialty melons, Hort Innovation
47	호주 슈퍼마켓 taste growers market(https://tastegrowersmarket.com.au/)
48	식품기업 Agroponiente(www.agroponiente.com)
49	Market Produce Specifications: Rockmelon (Reticulatus), The Australian Chamber of Fruit & Vegetable Industries Limited
50	호주 슈퍼마켓 Woolworths(www.woolworths.com.au)
51	호주 슈퍼마켓 Coles(www.coles.com.au)
52	호주 슈퍼마켓 Harris Farm(www.harrisfarm.com.au)
53	호주 농산물직판장 Orange Melon(https://orangecandy.com.au/)